

# 最近의 國際化 論議에 對한 批判的 考察

金永椿·金聖培\*

## ◁ 目 次 ▷

- |                    |                      |
|--------------------|----------------------|
| I. 제3의 開國論爭을 맞이하여  | III. 國內 國際化 論議의 構造   |
| II. 國際化 論議의 理論的 背景 | 1. 國際化, 世界化 및 開放化    |
| 1. 國家競爭力 強化論       | 2. 國家競爭力 強化의 問題      |
| 2. 積極的 經濟民族主義論     | 3. 國際化와 民族主義         |
| 3. 地球化論            | IV. 結論: '實狀國際化'를 향하여 |

## I. 제3의 開國論爭을 맞이하여

1994년 들어 국내 관계와 학계를 막론하고 국제화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993년 말미 난항을 거듭하던 UR협상이 타결되고 쌀시장개방이 불가피해지는 등 국제적 충격의 여파가 몰려오면서 정부와 국민들은 이미 피부로 국제화를 실감하고 있었으나 국제화란 용어가 급작스레 人口에 膾炙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국제화, 개방화를 천명하고 나서부터였다. 김영삼대통령은 1994년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해

\* 金永椿(국제연구실장)

金聖培(국제연구실 연구원)

로 선포한 동 회견에서 세계가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이후 폭발적 유행어가 된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라는 용어를 모두 제시하였던 것이다.<sup>2)</sup>

이후 공보처에서 민간 여론조사기구를 통해 실시한 전문가집단의 의견조사와 각종 학술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국제화논의가 만발하게 되는데 혹자들은 이를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전후하여 전개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간의 제1의 개국논쟁, 1960년대 이후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정책을 대상으로 하였던 제2의 개국논쟁에 이은 제3의 개국논쟁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sup>3)</sup> 비록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19세기 조선이 직면하였던 조건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성만은 그 당시에 못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만사지감이 있기는 하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화에 대한 본격적 연구의 역사가 짧은 탓에 우리의 논의구조가 대단히 협애하고 왜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보면 논쟁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부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화에 무수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단지 유행에 불과했지 실속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제 진정 우리가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말로만의 ‘虛名國際化’가 아닌 ‘實狀國際化’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논의를 차분히 검토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현하 국제화논의를 검토하기 위한 전제로서 국제화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국가경쟁력 강화론, 적극적 경제민족주의론, 지구화론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국내에서의 국제화논의의 구조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국제화, 세계화 등과 관련된 개념적 문제,<sup>4)</sup> 국가경쟁력 강화론의 문제점, 그리고 국제화와 민족주의의 상관관계

2) 「1994년도 김영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개혁과 세계화로 재도약」(서울: 공보처, 1994) 참조.

3) 김여수, 「서구화, 국제화, 세계화」, 「철학과 현실」(1994년 봄호), pp.51-52.

4) 우리 나라에서의 용례를 보면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와 ‘지구화’(globalization)라는 말이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한편, ‘세계화’라는 말도 종종 사용되는데 때에 따라 ‘국제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지구화’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국제화논의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를 통칭한 것이다. 여기서는 국제

에 관심의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상의 검토에 기반하여 기존의 논의에 대한 평가와 ‘實狀國際化’를 위한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 II. 國際化 論議의 理論的 背景

### 1. 國家競爭力 強化論

사실 국가경쟁력 강화론은 ‘국제화’라는 말이 주는 일반적인 어감으로부터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이론이다. 국제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internationalization’이건 ‘globalization’이건 간에 超國家的 關係의 확대를 의미하고 따라서 국가의 역할감 소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반해 국가경쟁력 강화론은 산업의 세계화와 기업의 국제화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기업의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국제화논의의 주류적 입장은 바로 이 국가경쟁력 강화론에 기초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면 국제경쟁력 강화론의 주장은 무엇인가?

국제경쟁력 강화론(또한 그와 더불어 공정무역론)은 하버드 경영학과의 포터(Michael E. Porter)와 요피(D. Yoffie), MIT 경제학과의 크루그만(P. Krugman), 버클리 국제경제학과의 타이슨(L. Tyson)과 차이스만(J. Zysman)에 의해 주창되어 현재 클린턴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좌우하고 있는 이론이다. 포터의 최신 저작 「국가경쟁우위론」(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론의 핵심적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터가 기본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어떤 특정한 국가에 ‘홈 베이스’(home base)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특정한 분야에서

---

화, 세계화라는 일반적 용례를 따르되 특별히 globalization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구화’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겠다.

세계 굴지의 경쟁자들에 대해서 경쟁우위를 획득·보존하는가라는 점이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제기하면 무슨 이유에서 어떤 특정한 국가가 특정한 산업부문에서 성공적인 국제 경쟁자들의 홈 베이스가 되는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설정은 특정한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추구하는 국가의 영향력은 생산성향상의 수준과 비율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sup>5)</sup>

따라서 산업의 세계화와 기업의 국제화에 따라 기업은 국가를 초월해 존재하며 기업의 국제적 성과에 국가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선입관은 근본적으로 거부된다. 즉, '경쟁의 세계화'는 국가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중요성을 더욱 부추긴다는 것이다. 특정한 산업부문의 선도그룹은 진정한 경쟁우위를 지원하는 일부 나라에 집중되며 수십년 동안 경쟁우위를 유지한다. 한편, 기업의 소유권은 종종 홈 베이스에 집중되지만 주식소유자의 국적성은 이차적인 문제이다. 현지기업이 전략적, 창조적, 기술적 통제에 의해서 진정한 홈 베이스로 남는 한은 비록 외국투자자나 기업에 의해서 소유된다고 할지라도 국가는 대부분의 이익을 자국 경제에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sup>6)</sup>

기업에게 특정부문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주는 국가의 결정적인 특징들을 '국가의 경쟁우위'라고 규정하는 바, 이러한 국가의 경쟁우위는 매우 현장적인 과정을 통해서 획득·유지된다. 즉, 국가경제구조, 가치, 문화, 제도·역사에서의 차이점이 국가경쟁우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sup>7)</sup>

이러한 국가의 경쟁우위는 비교우위 즉, 생산요소에 기초한 우위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대부분의 무역이론이 비용에만 주목하는데 반해서 경쟁우위론은 분절화된 시장, 다양한 생산물, 기술적 차이, 경제의 규모 등을 포함하는 풍부한 경쟁개념을 채택한다. 선진화된 산업부문에서는 질과

5) Michael E.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New York : Free Press, 1990), p.1.

6) Michael E.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New York : Free Press, 1990), pp.18-19.

7) Michael E.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New York : Free Press, 1990), p.19.

특색, 그리고 생산방법혁신이 중심적이다. 비용우위라는 것이 요소비용 혹은 규모에서의 우위에서 만큼이나 디자인과 선도기술으로부터도 나오는 것이다. 경쟁에 대한 정적인 관념에서는 생산요소를 고정화된 것으로 취급하는데 반해 국가경쟁우위론은 생산요소의 질, 그 것을 실용화하는 생산성 및 신제품의 창출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sup>8)</sup>

국가경쟁우위론은 방법 및 기술혁신을 중심적 요소로 취급하는 바, 이 과정에서 주목되어야 하는 것은 혁신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다. 문제는 국가가 자국 기업이 특정한 산업부문에서 외국 기업 보다 신속하게 진보·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냐는 점이다. 하지만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행동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우위에 핵심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사실로 제시되고 있다.<sup>9)</sup>

## 2. 積極的 經濟民族主義論

이른바 국제화 또는 세계화는 지금은 미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부장관이 된 라이시(Robert B. Reich) 하버드대 공공정책학 교수의 중심적 테마였다. 그가 한국에서 갑자기 유명해진 이유는 김영삼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에 라이시의 저서 「국가의 역할」(The Work of Nations)로 경제학 공부를 한다는 보도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그 진위는 차치하고라도 국내의 국제화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해 볼 이유는 충분하다 하겠다.

라이시는 경제의 국제화 결과 이제 국민경제는 별 의미가 없으며 'made in USA'라는 말이 아무런 뜻이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미국에서 디자인하고 일본 설비로 싱가포르에서 조립한 컴퓨터가 누구의 제품인

8) Michael E.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New York : Free Press, 1990), p.20.

9) Michael E.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New York : Free Press, 1990), pp.20-21.

가가 뭐 그리 중요하냐는 것이다.<sup>10)</sup> 즉, 경제의 국제화 결과 ‘국민경제’라는 가정이 허물어짐으로써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더 이상 민족으로서의 ‘우리’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혜택이 곧바로 국민경제의 구성원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국제경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소수전문인들(symbolic analysts)과 다수 국민들의 빈부격차는 날로 늘어날 뿐인 것이다.<sup>11)</sup>

그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積極的 經濟民族主義’(positive economic nationalism)를 제시한다. 국경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구경제의 출현 속에서 인적 자원의 개발을 통해 국민들의 국제경제에 대한 기여를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역할이 민족사회에 주어진다든 것이다. 그가 볼 때,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이러한 적극적 경제민족주의야말로 진정한 코스모폴리탄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인 것이다.<sup>12)</sup>

국제화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연장에서 보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도 당연히 달라진다.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이시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제품디자이너, 회계사, 변호사 같은 ‘symbolic analysts’들이 미국에 많이 살도록 하면 제조업이 없어도 잘사는 사회로 만들 수 있고 국가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클린턴이 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기투자이고 앨 고어의 임포테이션 슈퍼하이웨이도 이러한 사회의 하부구조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이시의 관점은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의 적극적 경제민족주의론은 경제국제화로부터 경제민족주의의 필요성을 도출하는 흥미 있는 발상인 바, 기업경쟁력 강화를 일면적으로 강조하고 통상적인 경제민족주의(신중상주의)와는 차원을 달리 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의 이론

10) Robert B. Reich, *The Work of Nations*(New York : Alfred A. Knopf, 1991), pp. 148-53.

11) Robert B. Reich, *The Work of Nations*(New York : Alfred A. Knopf, 1991), pp.3-9.

12) Robert B. Reich, *The Work of Nations*(New York : Alfred A. Knopf, 1991), pp. 301-15.

이 주는 국제정치적 함의는 다분히 포터의 국가경쟁력 강화론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즉, 미국이 모든 산업에서 다른 나라 보다 나올 수는 없으므로 특정 산업과 특정 직종의 우위를 중심으로 한 국민경제의 적극적 재편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3. 地球化論

국내의 국제화논의는 국제적 무한경쟁하의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논지를 중심으로 협애화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항목에서는 국내에서는 주변적 입장으로 배제되어 있는 지구화론의 소개에 할애하기로 한다.

지구화란 간단히 말해서 지구를 하나의 단위체로 만들어 가는 현상이다. 즉, 민족국가로 분열되어 있는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가는 현상인 것이다.<sup>13)</sup> 동시에 지구화는 민족국가 및 그 상하위 행위자간 상호작용의 심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구화는 민족국가를 넘어서는 영토적 확대임과 동시에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간 상호연관성의 심화인 것이다.<sup>14)</sup>

지구화의 일차적인 動因은 경제기술적 요인이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초국적 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생산, 금융, 무역에서의 국제화 즉 경제의 국제화가 지구화를 촉진한 폭발적 요인이었음은 무문의 사실이다.<sup>15)</sup> 또한 교통, 통신 분야에서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재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전체를 공동운명체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한 것이다.<sup>16)</sup>

한편, 지구화는 경제적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規範的 要素를 내포하는 현상이다. 환경문제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면서 근대적 차원의 領土性 原理

13) Anthony McGrew, "A Global Society"? S. Hall, D. Held and A. McGrew(eds.), *Modernity and its Future*(Cambridge : Polity Press, 1992), pp.63-64.

14) Anthony 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1990), p.64.

15) Robert Cox, "Global Perestroika", Ralph Miliband and Leo Panitch(eds.), *Socialist Register 1992*(London : The Merlin Press, 1992), p.34.

16) Roger Williams, "Technical Change : Political Options and Imperitives", *Government and Opposition*, 28(2), 1993 참조.

가 부정되고 지구를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sup>17)</sup> 주지 하듯이 환경문제는 민족국가의 경계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적 문제인 것이다.

또한 지구화는 사회운동과 문화의 영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환경운동 외에도 인류의 보편적 문제를 다루는 평화운동, 인권운동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국경을 초월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의 지구화도 지구화론의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문화의 地球化가 同質化와 동의어가 아니며 分化를 포함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sup>18)</sup>

이러한 지구화의 결과 200여년전 벤담이 처음 사용하였다고 하는 ‘國際’(internatioanl)라는 표현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sup>19)</sup> 따라서 지구화는 국가간 관계의 확대를 의미하는 국제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엇 보다도 국제화가 국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에 지구화론은 국가중심성을 부정하고 있다. ‘지구적 문제설정’(global problematique)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경제, 환경, 인구, 식량 문제 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 안보, 사회 문제들에 있어서도 지구적 차원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sup>20)</sup>

이러한 지구화 현상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될 점은 그 것이 ‘지방화 현상’(localization)을 동시에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의 지구화가 동질화와 분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와 같은 논리이다. 콕스(R. Cox)는 19세기에 대한 폴라니(polany)의 분석틀을 차용하여 지구화가 어떻게 분화를 낳는지에 대한 흥미 있는 설명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세계적 수준에서의 ‘시장유평피아’를 향한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 경향이 1단계로 나타난

17) Joseph A. Camilleri and Jim Falk, *The End of Sovereignty? : The Politics of a Shrinking and Fragmenting World*(Hants : Edward Elgar, 1992), pp.192-98.

18) 문화의 지구화 현상과 지구문화 논쟁에 대해서는 Mike Featherstone(ed.), *Global Culture :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London : Sage, 1990)을 참조할 것.

19) James N. Rosenau, *Turbulence in World Politics : A Theory of Change and Continuity*(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90), pp.5-6.

20) John G. Ruggie, "On the Problem of Global Problematique : What roles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ternatives*, 5(1), 1980.



다. 2단계에서는 지구화에 의하여 해체된 사회의 自己防禦的 對應이 나타나 시장을 文明化하게 된다. 경제의 지구화는 문화적 동질화를 수반하며 그에 의해 가속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동질화 경향은 각종 정체그룹과 문화적 전통들에 의하여 저지된다. 특히, 경제의 지구화에 따른 국가 역할의 축소는 국가를 가지지 못한 민족들과 국경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종족적, 종교적 단위들의 자기표현 기회를 제공한다. 환경, 성, 평화운동 같은 신사회운동들도 반체제운동의 원천이 된다. 이렇듯 “지구화는 역사의 종언이 아니며 새로운 갈등과 화해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sup>21)</sup>

지구화는 근대 유럽사회의 팽창과는 다른 현상으로 파악된다. 근대 국제사회의 확대는 유럽의 민족국가와 자본주의의 영토적 팽창이었음에 반해서 지구화는 近代的 時空間을 재구성한다. 즉, 지구화는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영역 변화에 의한 時空間 壓縮의 결과이며, 이러한 시공간의 압축은 경제, 기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 Ⅲ. 國內 國際化論議의 構造

#### 1. 國際化, 世界化 및 開放化

이상의 이론적 검토에 기반하여 국내의 국제화논의를 분석하려고 한다.

21) R. Cox, "Toward A Post-Hegemonic Conceptualization of World Order", J. Rosenau & E. Czempiel(eds.),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92), pp.144-46 ; "Multilateralism and World Order",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8, 1992. pp.177-79. 콕스가 볼 때, 지구화 및 분화과정으로부터 탄생하게 될 세계질서의 모습은 불(H. Bull)이 제시한 '신중세주의'(new medievalism)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구화의 결과 출현하게 될 세계질서는 大小 지역주의, 전통적 국가, 국제기구, 초국적 기업을 위시한 각종 초국적 단위들이 상호 작용하는 다면적 질서가 될 것이다. Robert Cox, "Global Perestoika", Ralph Miliband and Leo Panitch(eds.), *Socialist Register 1992*(London : The Merlin Press, 1992), p.36.

우선 논의의 전반적인 構圖를 포착하기 위해서 개념적인 문제부터 검토해 보자. 국제화, 세계화 및 개방화의 개념 및 상호 관계가 문제의 핵심이다. 국내의 국제화논의를 선도한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 자신이었으며 이후 관학계 주도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공보처에서 실시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국제화란 경제, 제도, 문화, 의식에 있어서 개별국가 내부의 固着性을 뛰어넘는 국가간의 교류를 뜻하며, 국수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국경을 큰 장애로 여기지 않는 다국 공통적 활동과 의식을 확산해야 한다는 인식을 포괄한다. 그런가 하면 세계화란 개별국가의 개념이 약해지면서 세계 단일 공동체의 개념이 확산된다는 점에서 국제화 보다 상위개념으로서, 여기에서는 우리의 활동을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개방화는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위한 수단적 개념으로서, 여기에서는 경제시장의 개방을 전형으로 삼되, 우리 입장과 이익을 근간으로 세계의 이익이나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두드러진다고 한다.<sup>22)</sup>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대단히 표의적일뿐만 아니라 평면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들 개념이 비교적 설득력 있게 규정된 것은 1994년 1월 25일 외교안보연구원 주최한 「국제화와 한국의 과제」라는 세미나에서였다. 동 세미나에서 이흥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국제화는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와 다른 나라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초점을 둔 문제인 반면 세계화는 우리가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제화가 현실주의에 입각한 경쟁에의 적응 노력이라고 한다면 세계화는 이상주의를 바탕으로 한 협력으로의 방향선택이라는 것이다.<sup>23)</sup>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박수·김정수 박사 역시 국제화는 국가를 개별단위로 한 국제사회를 상정하여 문화, 경제활동의 국가간 자유로운 교류와 이를 통한 의식 및 관행의 국가

22) 김문환, 「한국문화의 국제화」(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 1994), p.1.

23) 이흥구, ‘국제화의 도전과 과제’, 「국제화와 한국의 과제」(외교안보연구원, 1994), pp.9-10.

간 조화가 주내용인 반면 세계화는 세계를 균질화된 단일사회로 상정하고 궁극적으로 세계체제와 완전히 통합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제화와 세계화의 관련에 관하여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그 만큼 세계화가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중견국가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의 현위상을 고려할 때, 현재단계에서는 국제화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sup>24)</sup>

이러한 국제화에 대한 국내의 지배적 담론에서 발견되는 것은 국제화와 세계화를 구분하여 양자를 단계적인 진화의 과정으로 파악하여 ‘국제화가 우선’이라는 식의 논리를 추론한다는 점이다. 또한 양자를 복합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는 경우에도 후자를 당위적 과제로 격하시켜 대단히 이상주의적 접근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되는 바, 국제화에 대한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는 현 국제경제정세를 반영하는 지극히 정당한 목표설정이지만 그것이 국제화에 대한 유일한 대응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국제화와 세계화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국제화는 자연스럽게 세계화로 연결된다는 식의 낙관적 견해는 세계화라는 과제를 지연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세계화 또는 지구화는 단지 경제학적 관점에서 파악될 문제만도 아니며 협력의 당위적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 2. 國家競爭力 強化의 問題

앞절에서 분석하였듯이 국내 국제화논의의 支配的 談論은 국제화를 무한 경쟁을 주원리로 하는 국제사회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경쟁력 강화론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관·학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론의 주된 논지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24) 金博洙·金廷洙, 「우리경제의 국제화」(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p.26-27.

논의의 편의를 위해 국제화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국제경쟁력 강화론)을 단순화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화는 무한적인 세계경제전쟁이다. 둘째, 이 경쟁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두가지 길만이 존재한다. 셋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가치다. 넷째, 국가의 개입과 규제는 가능한한 축소되어야 한다. 다섯째, 고임금체계를 억제해야 하고 노사관계를 최대한 안정화해야 한다. 여섯째, 언어, 실무능력 등 개개인의 국제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등이다.

이러한 국제경쟁력 강화론은 무한경쟁이라는 국제화에 대한 일면적 파악에도 불구하고 현하 세계경제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거래의 무국경화 경향에 따라 공산물은 물론이고 자본, 서비스, 심지어는 노동력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상품이 일국단위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초국적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 자본주의는 적자생존의 무한경쟁이 있을 뿐인 비정한 시장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강화의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의 국가경쟁력 강화론은 생산요소비용(임금, 금리, 지대)의 절감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sup>25)</sup> 그런데 앞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에서 탄생한 국가경쟁력 강화론은 자유무역이론에 기초한 생산요소비용 우위론을 부정한다. 오히려 국가경쟁력 이론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격경쟁우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제품차별화에 기초한 경쟁우위가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품차별화 경쟁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수준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제품디자인 기술과 공정기술의 우위에 기초한 경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쟁우위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혁신조직, 생산조직 등 기술적 조직형태와 노사관계 등 국민 각 계층간의 분배를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조직형태이다. 자국에 적합한 기술적, 사회경제적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길이라

25) 「1994년도 김영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개혁과 세계화로 재도약」(서울:공보처, 1994) 참조. 동 회견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재벌에 대한 행정규제의 축소와 임금, 금리, 지대 등 요소비용의 절감이다.

는 것이다.

임금, 금리, 지대 모든 면에서 한국경제의 요소경쟁력이 사라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 원인은 그 동안의 수출주도 성장정책이 가져온 경제구조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도 구조적 개혁일 수 밖에 없다. 포터의 국가경쟁력 발전단계(요소 주도경쟁-투자 주도경쟁-혁신 주도경쟁-자산 주도경쟁)에 따른 한국경제의 위치도 이를 확인해 준다. 포터는 한국이 혁신 주도경쟁의 주요 요소를 확보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sup>26)</sup> 물론 우리의 국가경쟁력 강화론도 단지 임금, 금리, 지대 등 요소비용 절감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R & D 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혁 보다는 재벌 위주의 단기 성장정책, 요소비용 가격의 단기적 억제에 의한 경쟁력 확보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기에 이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 3. 國際化와 民族主義

우리는 지금 매우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통일원을 중심으로 ‘민족공동체의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가 주창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재벌을 중심으로 국제화, 개방화에 대한 목소리가 드높다. 이러한 사정을 의식하듯 무성한 국내 국제화 논의의 대부분은 국제화가 무엇이든 그것이 민족주의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국제화는 결코 민족주의와의 결별이 아니고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의 조화가 되어야 할 것”,<sup>27)</sup> “진정한 의미의 개방화와 세계화가 이루어지려면 민족적 자아의 확인이 먼저 요청”,<sup>28)</sup> “국제화는 보편성과 고유성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9)</sup>는 등등의 언급들은 우

26) Michael E.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New York : Free Press, 1990), pp.685-90.

27) 한승주, ‘기조연설 : 국제화와 한국의 과제’, 「국제화와 한국의 과제」(외교안보연구원, 1994), p.6.

28) 엄정식, ‘개방화, 세계화, 그리고 민족적 자아’, 「철학과 현실」(1994년 봄호), p.16.

29) 송복, ‘현 국민정서라면 국제화 어렵었다’, 「한국논단」(1994년 3월호), p.133.

리가 추구하는 국제화가 다른 문화에 ‘끌려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방어의를 깔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국제화와 민족주의의 양립 근거를 단지 당위적인 차원에서 구할 뿐 논리적 필연성으로부터 추론해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은 국제화를 국제적 무한경쟁으로 해석하고 무한경쟁 시대에는 민족주의가 보약이라는 식의 신중상주의적 경제민족주의(혹은 기술민족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는 무한경쟁에 살아남는 자만이 우리 민족이며 이 경쟁에서 낙오되는 자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排除의 論理를 함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제의 논리를 함축한 민족주의가 민족공동체의 이념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또한 기존의 저항적 민족주의가 대안이 될 수 없음도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면 민족구성원들을 감싸 안고 국제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민족주의의 模型은 무엇이냐? 앞서 소개한 라이시 교수의 ‘적극적 경제민족주의’가 한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라이시는 경제의 국제화 현상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대처하는 한 방식으로 민족주의를 제기하고 있는 바, 지구화 시대에 민족공동체의 존립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라이시의 입장은 민족주의의 정서적 열정 그 자체에 집착하거나 민족주의를 이념으로까지 격상시키려는 시도와는 구분된다. 우리가 민족주의를 국제화와 더불어 추구하려는 이유는 현시대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 기반하여야 한다.

인류의 이상으로서의 보편공동체에 대한 전망을 포기할 수는 없으나 특수공동체로서의 민족공동체의 소멸을 논하는 것도 무책임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제화, 세계화는 동질화와 동의어가 아니며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여 그 과정의 피해자와 수혜자간의 새로운 세력구도를 창출하게 된다. 보편공동체의 전망이 아직은 이상일 뿐이며 유엔 등 국제기구가 강대국의 시너로 전략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족공동체는 국제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시켜 줄 수 있는 탄력적 단위로 기능하여야 한다.<sup>30)</sup>

#### IV. 結論：‘實狀國際化’를 향하여

지금까지 국제화에 대한 제반 이론을 살펴보고 이에 기반해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제화논의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혹자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화논의의 특징을 ‘哲學의 不在’와 ‘論爭의 缺如’라고 지적한다. 즉,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이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모든 문제를 ‘경제적 돈벌이’에 연결시키는 物神的 實用主義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다.<sup>31)</sup>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의 국제화논의가 지나치게 협애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와 언론은 국제화논의를 ‘무한경쟁’과 ‘국가경쟁력 강화론’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 반대편에서 농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은 정부의 언론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화론이 ‘노동통제와 농업해체를 위한 이데올로기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화논의는 UR 타결로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전쟁이라는 측면에 한정된 기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지구적 문제설정’(global problematique)과 정보·통신혁명이 초래한 삶의 양식 변화 및 정체성 위기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어 일부 생태주의 학자들과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해 외롭게 주창되고 있을 뿐이다.

최근의 국제화논의가 단지 임금통제를 강요하고 농업개방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지구화’(globalization)라는 말이 국내에 소개된지도 어언 수십년 지난 상황에서 최근 국제화논의의 만개는 오히려 때 늦은 감마저 있다. 하지만 우리의 국제화논의는 더욱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야만 한다. 국제화가 우리 존재양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학적

30) 김성배, ‘지구화시대의 민족주의’, 하영선 편 「탈근대지구정치학」(서울 : 나남, 1993), p.393

31) 박형준, ‘국제화론, 철학의 부재와 논쟁의 결여’, 「월간 말」(1994년 2월), p.156.

성찰은 결코 한가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폭넓고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서단 우리는 진정한 국제화에 도달할 수 있다.

둘이켜 보건대 19세기말 개국을 전후한 시기의 개화논쟁은 단지 개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하는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대 서양의 가치규범의 수용을 둘러싼 근본적인 것이었다. 또한, 개국은 단지 시작이었을뿐 밀려오는 서양세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통질서의 보다 근본적 개혁이 요구되었다.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것도 開國(1854)이 조선의 개국(1876, 강화도조약)보다 20여년 빨랐기 때문이 아니라 明治維新(1868)이라는 근본적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작금의 국제화논의도 제3의 개국논쟁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호들갑스런 말잔치 보다는 보다 깊이 있는 성찰, 그리고 국제화 또는 지구화에 조응하는 국내체제의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구나 목하 국제화는 단지 19세기말 西勢東漸의 상항하에서처럼 西洋化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양근대질서 자체의 변혁을 내포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양복에는 색깔있는 양말을 신어야 한다’는 식의 국제신사론은 유길준이 지적한 ‘虛名開化’의 現代版 즉, ‘虛名國際化’일 뿐이다.<sup>32)</sup> 국제화가 우리의 근대적 삶의 양식에 초래하는 변화에 대한 통찰까지 나아가야 우리는 ‘實狀國際化’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32) “且夫開化는 實狀과 虛名의 分別이 有호니 實狀開化호는 者는 事物의 理致와 根本을 窮究호며 考諒호야 其國의 處地와 時勢에 合當케 호는 者며 虛名開化라호는 者는 事物上에 知識이 不足호디... 前後를 推量호는 智識이 無호고 施行호기로 主張호야 財를 費호기 不少호디 實用은 其分數를 抵호기 不及호이니...” 兪吉濬, 「兪吉濬全書1」 〈西遊見聞〉(서울:一朝閣, 1971), pp.400-401.